



# 스웨덴의 실업자 지원제도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④ - 스웨덴

손혜경 (스웨덴 옘살라대학교 경제사학과 박사)

## ■ 머리말

스웨덴의 경기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12년 하반기 이후 스웨덴의 제조업, 기계업, 자동차산업, 건설업 각 분야에 걸쳐 다수 민간 기업들이 연일 인원감축 예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감원 예정 발표 빈도도 높아지고 또 실제 실업률도 서서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규모 시위를 볼 수 없다. 이는 물론 스웨덴의 실업보험 및 기타 복지제도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업보험과 실업부조가 실업자 보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실업자 보호제도인 소위 노동시장 안정재단(Trygghetsrådet)의 활동 덕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글은 우선 최근 스웨덴 노동시장 발전 현황과 두 번째로 노동시장 안정재단의 역사적 배경, 재정 운영방법, 활동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 ■ 스웨덴 노동시장 현황

스웨덴 노동시장의 하향 발전 추세는 이미 2012년 3사분기의 마지막 달인 9월의 감원 예정 인원 수준이 지난 해 전체 수준과 비등한 것을 볼 때 잘 알 수 있다. 9월의 감원 예정 수준은 약 7,300명으로 8월에 비해 상당히 올라갔으며 과거 3년간의 감원 예정 수준을 돌이켜 볼 때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스웨덴 국영고용센터의 한 담당자는 보통 감원 예정이 이렇게 연일 계속 발표되는 일은 드문 현상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런 감원의 바람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더욱 심각한 불경기의 시작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실 가을 초반기에 경기가 약간 후퇴할 것이라고 스웨덴 경제전문가들이 예측하긴 했는데 현재 각 기업들의 감원 예정 발표는 이런 예측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지도 모른다.

스웨덴 제조업의 경기가 계속 하강하고 있는데 그 수준은 2009년과 유사하다고 한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경기도 하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서비스업 구매 담당자 지수가 8월에는 50.7포인트였는데 이 수치가 9월에는 47.3포인트로 내려갔다. 50포인트를 기준으로 경기가 성장 추세인지 또는 하강 추세인지가 결정되는 것임을 볼 때 9월의 수치는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한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제조업체들의 감원 예정 발표는 스웨덴 주요 건설업체들의 감원 발표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10월 6일 스웨덴의 신용조사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사업체들의 부도 횟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스웨덴 금속노조연맹 소속 임금교섭 대표자는 최근 전국 사업장 방문을 실시하였는데, 많은 사업장에서 특히 제조업과 철강업체 노동조합들이 앞으로의 경기발전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인 견해를 보였다고 한다. 보통 불경기는 3단계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는 파견업체의 직원 수가 감소하고, 두 번째 단계에는 한시 고용 계약자들의 인원 수가 감소하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장기 고용 계약자들의 인원 수가 감소한다. 최근 상당수의 기업들이 세 번째 단계인 인원 감축 예정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스웨덴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유럽연합 국가들의 경기후퇴로 인해 스웨덴 기업체에 대한 주문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금속노조의 교섭대표자는 기업들이 인원감축을 단행하는 대신 추가 교육을 늘리기를 원하고 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또 다른 중요한 산업인 임업도 경기후퇴의 양상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어 임업 전문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임업이 후퇴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건축업의 경기가 거의 정지 상태라 목제품 주문량이 거의 중단된 상황이며 또한 스웨덴 통화인 크로나의 강세로 인해 유럽시장으로의 목제품

수출이 격감하고 있다. 건설업이며 수출시장 모두 앞으로 경기발전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제지, 임업 분야의 노동시장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이런 현상이 조속히 해결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sup>1)</sup>

10월에 들어서도 인원감축 예고가 계속 발표되었는데 볼보자동차에서 400명, 홀멘의 제지 공장에서 230명, 스웨덴 항공기 회사에서 450명의 인원감축을 예고하였다. 인원감축 예고는 11월에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아틀라스 코프코, 트렐레보리 및 에릭슨 회사 등지에서 약 1,550명의 인원감축 예정을 공고하였다. 10월 말 실업자 수는 216,000명으로 지난 해 동월에 비해 12,000명이 올라간 수치이며,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업자를 포함할 때 실업률은 9월의 8.4%에서 10월에는 8.6%로 상승했다. 최근 스웨덴의 일부 경제전문가는 스웨덴이 경기 하강국면에 들어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 스웨덴 노동시장 안정재단<sup>2)</sup>

노동시장 안정재단은 1974년에 스웨덴 기업가 연맹 및 민간부문 화이트칼라 임금단체 협약 카르텔에 의해 설립되어 현재 약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3)</sup> 노동시장 안정재단은 전국에 걸쳐 40개의 지부가 있고 본부는 스톡홀름에 있으며, 전체 직원 수는 230명이다. 연간 자금 운영 규모는 약 10억 크로나(한화 약 1,600억 원)에 달한다.

노동시장 안정재단은 스웨덴 경기의 부침에 따라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감소할 경우 또는 그럴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전직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정 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갔을 때 직원, 간부급 및 노동조합에게 전직을 위한 조언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1) Svenska Dagbladet(2012. 10. 6), "Varselvåg sveper in över landet".

2) Trygghetsrådet, www.tr.se

3) 스웨덴 기업가 연맹은 약자로 SN, 스웨덴어 명칭은 Svenskt Näringsliv이고 영문 명칭은 Confederation of Swedish Enterprise이다. 민간부문 화이트칼라 임금단체 협약 카르텔은 약자로 PTK, 스웨덴어 명칭은 Privattjänstemannakartell이고 영문 명칭은 The Council for Negotiation and Co-operation이다.

노동시장 안정재단의 활동은 스웨덴 기업가 연맹과 민간부문 화이트칼라 임금단체 협약 카르텔 사이에 체결된, 소위 전직협약(omställningsavtalet)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협약은 민간부문 화이트칼라 임금단체 협약 카르텔에 소속된 직원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 예를 들어 우체국, 스웨덴 전화회사, 국영 전력회사 소속 직원들은 생산직 및 서비스 노동조합 총연맹 LO 산하 서비스 및 통신 노동조합 SEKO와 스웨덴 예술품 및 골동품 거래자 협회 SKAF 또는 민간부문 화이트칼라 임금단체 협약 카르텔 비소속 노동자대표단체, 예를 들어 화이트칼라 노동조합 총연맹 TCO 산하 노동조합 Vision, 그리고 공공기업 소속 전문가 노동조합 ST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들 직원에게도 전직협약이 적용된다. 간단히 말해 화이트칼라 노동자 단체와 사업주가 노동시장 안정재단의 주요 고객이라고 할 수 있다.

## ■ 노동시장 안정재단의 재정 기반<sup>4)</sup>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 안정재단은 스웨덴 기업가 연맹과 민간부문 화이트칼라 임금단체 협약 카르텔이 중심이 되어 운영된다. 스웨덴 기업가 연맹에 소속된 약 32,000 개에 달하는 민간기업들이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 70만 명을 위해 보험을 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이 지급하는 보험금은 전직협약의 적용을 받는 직원들 임금의 0.3%이다.

스웨덴 기업가 연맹 비소속 기업들은 민간부문 화이트칼라 임금단체 협약 카르텔과 연계된 특별 협약을 통해 노동시장 안정재단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기업들은 기업가 연맹 소속 기업들보다 높은 수준인 0.7%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일정 기업에서 인원감축이 필요할 경우 노동시장 안정재단의 전직협약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 직원들에게 경제적, 재고용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기업의 보험금은 0.3%에서 0.18%, 특별 협약을 하고 있는 기업의 보험금은 0.7%에서 0.58%로 낮추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4) Trygghetsrådet, [www.trr.se](http://www.trr.se)

## ■ 전직협약(Omst llningsavtalet)<sup>5)</sup>

전직협약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인원감축의 필요성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임금의 일정 금액을 적립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인원감축 필요성과 인원감축의 대상이 된 근로자들의 경제적 지원 및 전직지원 필요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에서 인원감축의 필요가 발생할 경우 기업 측이나 노동조합 측이 스웨덴 고용안정법상의 해고순서(Turordningen, last in, first out, 다시 말하면 최후 고용, 최초 해고)에 따라 인원감축을 단행할 의무를 져야 한다. 이는 기업과 노동조합 양측 모두 인원감축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높은 생산성, 수익성, 경쟁력 달성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스웨덴 기업가 연맹과 민간부문 화이트칼라 임금단체 협약 카르텔이 체결한 전직협약에 따르는 지원은 여러 가지 형태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취업상담, 지도 그리고 전직 또는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각종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정식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일주일 최소 근무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제공된다. 이 외에도 연령과 근로기간 조건이 충족하였을 경우 퇴직수당 형태의 경제적 지원도 포함한다.

전직협약 13조에 의하면, 기업이 원할 경우에는 노동시장 안정재단에서의 전직지원을 동일 기업 내부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럴 경우 노동시장 안정재단은 해당 사업주에게 1회에 한해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금액은 반년에 한 번씩 결정되는데 201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27,500크로나(한화 약 443만 원)이다. 이 금액은 전일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고 만일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그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기업이 노동시장 안정재단에서 이렇게 일회성 지원을 받으려면 노동시장 안정재단에서 전직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사업장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해야 한다. 사실상 감원 대상이 된 직원들 중 일부는 노동시장 안정재단에서 전직지원 받기를 원할 수도 있고 외부기관에서 전직지원 받기를 원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사업장별 사전 협약 체결 시 외부기관 전직

5) 노동시장 안정재단(1998. 1. 1), TRR, Omställningsavtalet mellan arbetsgivareförbund i Svenskt Näringsliv och Privattjänstemannakartellen(PTK).

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명단을 명확히 제시하여야만 한다.<sup>6)</sup>

노동시장 안정재단의 구직자 지원은 전직에 성공해 새로운 직장에 다니는 중 다시 한번 업무에 대한 수요 부족의 사유로 해고되었을 경우에도 계속된다. 이는 구직자에게 노동시장 안정재단의 담당자를 다시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서비스는 사후보호(Efterskydd)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데 이 사후보호는 구직자의 최후 고용계약 일자로부터 5년간 적용된다.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은 구직자가 업무에 대한 수요 부족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이다. 또한 구직자가 업무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해고당한 후 새로운 직장에 취직했는데도 만일 새로운 직장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 할 수 없이 그만두었을 경우에도 다시 노동시장 안정재단의 담당자를 만나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새로운 직장에 취직할 당해 연도에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사업가나 회사의 대표이사일 경우에는 사후보호에 대해서 일반 근로자와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개인사업가의 경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후 18개월간 사후보호의 규정이 적용되며, 회사의 대표이사일 경우 대표이사로 고용된 날로부터 1년간 사후보호의 규정이 적용된다.<sup>7)</sup>

전직지원의 실태를 알아보면 보통 구직자는 노동시장 안정재단 소속 담당자를 매월 1번씩 1시간 동안 만나는 것이 보통이다. 구직자가 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일이 없으면 전화 예약을 한 후 전화로 점검 사항을 검토하기도 한다. 구직자가 필요로 해서 담당자를 만나기를 원하는 경우 담당자는 최선을 다해 도움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통해서 구직을 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연습하기도 한다. 노동시장 안정재단은 또한 구직자와 미래 고용주가 만나는 기회도 마련하고 또한 여러 가지 구직에 관련된 세미나, 예를 들어 3분간 미래 고용주에게 자기소개하는 방법에 관한 세미나 등을 제공한다. 스웨덴에서 보통 구직을 할 경우 공공 직업센터에 등록을 하고 직업상담을 받는데 노동시장 안정재단에서 제공하는 직업상담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는 노동시장 안정재단은 가능하면 모든 구직자들(10명 중 9명)을 6개월 안에 전직 성공을 목표로 세우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일 것이다.<sup>8)</sup>

6) Trygghetsrådet, [www.trr.se](http://www.trr.se)

7) Trygghetsrådet, [www.trr.se](http://www.trr.se)

8) Eija(2012. 11. 30), 구직자 이메일 인터뷰.

## ■ 노동시장 안정재단에서 지급하는 퇴직수당

퇴직수당은 우선 노동시장 안정재단에 소속된 기업에서 업무에 대한 수요 부족의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퇴직수당 신청은 근로 종료 후 2년 이내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노동시장 안정재단에 함께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퇴직수당은 또한 근로자가 퇴직 일 기준 40세 이상이며 같은 사업장에 총 5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일주일에 최소 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월임금이 최소 21,100크로나(한화 약 340만 원)인 경우에만 지급된다. 만일 근로자가 퇴직 일까지의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근로자가 노동시장 안정재단에 소속된 다른 기업에 근무한 기간 및 그 이전의 근로기간까지를 감안해서 퇴직수당이 지급된다.<sup>9)</sup>

퇴직수당은 근로기간에 따라 지급되는데 만일 주당 근무시간이 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노동시장 안정재단에서 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퇴직수당은 원칙상 실업수당에 추가해서 지급되는데, 2005년 1월 21일부터 유효한 퇴직수당지급 원칙에 의하면 만 40~44세는 6개월 동안 월소득을 퇴직 전 임금의 70%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된다. 45~49세는 6개월간은 퇴직 전 임금의 70%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6개월간은 퇴직 전 임금의 5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된다. 60~65세는 6개월간은 퇴직 전 임금의 70%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 12개월은 퇴직 전 임금의 5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된다.<sup>10)</sup>

예를 들어, 근로자의 연령이 50세이고 월임금이 30,000크로나인데 업무에 대한 수요 부족의 이유로 해고가 되었다고 하자. 현재 실업보험법에 의하면 이 근로자의 1일 실업수당은 680크로나이며 6개월간 130일간의 근로일수에 받을 수 있는 최고 실업보험액은 88,400크로나가 된다. 이 근로자가 일시불로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6개월 × 30,000크로나/월 × 70% - 88,400크로나(실업수당) = 37,600크로나가 된다.<sup>11)</sup> 또한 같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자발적 임금보전

9) 노동시장 안정재단(2011. 2), Trygghetsrådet, "Redundant or lost your job? With TRR's assistance you can soon have a new job".

10) Ibid.

11) 기본적으로 퇴직수당은 실직 후 6개월간(130일간)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만일 실직 후 6개월간의 퇴직수당이 6,000크로나 또는 그 미만이면 금액이 일시불로 지급되나, 퇴직수당이 6,000크로나 이상이면 3차례로 나누어서 지급된다. 제일 첫 번째 지급은 실직 후 바로 이루어지며 두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실업수당과 퇴직수당에 추가하여 10%의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근로자는 실업 시작 최초 6개월간 실업 전 임금의 약 80% 선까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sup>12)</sup>

## ■ 노동시장 안정재단의 활동 기록

노동시장 안정재단은 지난 30년간 구조조정의 위기를 겪은 약 2만 개에 달하는 기업에 근무 하던 15,300명의 근로자에게 전직 서비스를 제공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즉 노동시장 안정재단에 등록한 10명 중 8명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벌인 후 전직에 성공한 실적이 있고, 노동시장 안정재단에 등록한 10명 중 8명이 전직지원을 받은 후 동등한 또는 비슷한 직업을 발견에 전직에 성공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 보통 전직을 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6~7개월인 것으로 밝혀졌다.

## ■ 맺음말

스웨덴의 최근 감원 예고 규모는 최근 3년간을 볼 때 가장 높은 수치이다. 문제는 이런 심한 감원의 돌풍이 조만간 그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웨덴 국외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스웨덴 국내 경제상황 개선이 어렵다는 말이다.

한 가지 유념할 사항은 국영고용센터의 경험에 의하면 보통 감원 예고의 60~70%만 실제로 해고되고 또 해고된 인원 중 단지 20%만이 감원 예고 발표 6개월 이후 실제로 실업자가 된다

번째는 2개월 후 그리고 세 번째는 4개월 후에 이루어진다. 보통 6개월 이후의 퇴직수당 지급은 노동시장 안정재단의 담당자와 구직자 간에 상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노동시장 안정재단의 구직자 지원은 실업 후 최초 6개월간 적극적으로 실시되므로 6개월 이후에도 실업수당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일이다.

12) Trygghetsrådet(2012. 11. 30), 퇴직수당관리부서, Lena, 전화인터뷰.



는 것이다. 이는 감축 예고 인원 중 약 30~40%는 해고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보통 기업들의 감원 예고 계획 발표 6개월에는 감축 예고 인원의 80%가 새로운 직업을 발견해 일하거나 공부를 한다는 사실이다.

앞에서는 스웨덴의 감원으로 실업 위기에 처한 근로자 및 실업자를 위한 노동시장 안정재단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노동시장 안정재단은 스웨덴 노동시장에 있어서 유일한 독립기관으로 사무직 근로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 및 경제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노동시장 안정재단은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화이트 칼라 근로자들의 실업 시 소득보장 및 전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실업 직후 6개월간 실업 전 임금의 70~80%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노동시장 안정재단은 근로자에게 전직이나 자영업 시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스웨덴 노동시장 안정재단의 비교적 훌륭한 전직지원 서비스는 스웨덴 노동시장이 현재 나날이 높아가는 해고율이나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상황임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KLI**